

[ 종합 ]

# 제5회 농업박람회 오늘 나주서 개막 친환경 특산품 7만5천점 전시



뿌리는 무, 잎은 배추인 '무추'.



기형 고구마.

류인섭 전남농업기술원장은 "다양한 친환경 농산물 전시와 체험 코너를 준비했다"며 "이번 농업박람회를 통해 농산물 수출촉진과 소비창출을 이끌어내 전남 농업 경쟁력을 한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 美·日 등 해외 바이어와 수출상담도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가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친환경 생명농업 세계로! 미래로! -녹색의 땅과 소비자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나주시 산포면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열린다.

이번 박람회는 친환경 농법으로 생산된 21개 시·군 대표 농특산물 600종 7만 5천점이 출품된 브랜드 농·특산물 전시 판매관을 비롯, 생명예술관, 친환경농업관, 어메이징관 등 10개 주 전시장과 7개 부대 전시관 등이 마련돼 전남 친환경 기술농업 및 한국농업의 과거·현재·미래를 한자리

에서 볼 수 있게 꾸며져 있다. 어메이징관에는 뿌리는 무이고 잎은 배추인 무추(영광)를 비롯해 1.5m 크기의 식용 박(무안), 세모와 네모꼴 호박(여수), 30cm 작두콩(나주) 등 별나고 희한한 농산물 202종 1천507점이 전시된다.

특히 수출 농산물 전시·관측관에는 생산업체와 농가 등 50여명이 참여해 미국, 일본 등 7개국 13명의 해외 바이어와 수출계약 85억원을 목표로 수출상담을 하게 된다. 매년 10월 개최되는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는 해를 거듭하면서 친환경

농업육성과 농가 소득 창출, 농도 전담을 널리 알리는 대표적인 농업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업박람회 관람객은 시작 첫해인 2002년 3만명, 2회 50만명, 3회 65만명, 4회 75만명이 찾았다.

농산물 관측역 역시 첫해 5천100만 원에 불과했으나 2회 121억원, 3회 224억원으로 급성장했으며 지난해에는 현장판매 9억원, 수출계약 82억원, 대형 유통업체 약정판매 170억원 등 모두 261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전남도는 올해 박람회 관람객을 65만명으로 예상하고 생산효과 295억원, 부가가치 135억원, 고용효과 950명 창출 등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 친환경농업 인증단계별 차등지원

### 전남도, 내실 다지기 나서

전남도가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의 단지 지원방법 개선 등을 통해 내실 다지기에 나섰다. 도는 친환경농업을 중점 추진한 지 2년째이지만 보조금 부족과 쌀 집중 현상, 기술적 한계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본보 10월 23일 1면)에 따라 24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행 ha당 지원단가 2백만원 기준으로 신규단지에 80% (160만원)를 지원한 후 다음 해에 50% (100만원)를 보조함으로써 중도포기 농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인증단계별 차등지원 방식(저농약 60%, 무농약이상 70% 보조)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매년 인증단계를 저농약→무농약→유기농으로 1단계씩 높아나가기로 해 친환경 농업 경지에 대한 지원이 3년간 계속 된다.

도는 친환경농업단지 보조금이 현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2010년 F1 그랑프리' 현대차 참여 여부 주목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조성(J프로젝트)의 선도사업으로 열리는 '2010 F1(포뮬러 원) 국제자동차 경주대회'에 현대차의 참여 여부가 조미의 관사로 떠올랐다.

로이터 통신은 22일(현지시간) 독일의 자동차 전문지 아우토포빌 보헤의 온라인 관을 인용, 현대차가 2010년 자체 팀으로 세계 최고의 자동차 경주대회인 'F1 그랑프리'에 출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잡지는 현대차 관계자의 말을 인용, "F1의 바니 에클레스턴 회장과 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잡지는 아울러 "2008년에 새로운 모터 스포츠 계약을 시작할 것이 라는 것만 알고 있다"는 현대차 유럽 법인의 간부 게리 도리자스씨의 말도 함께 보도했다. 에클레스턴 회장은 이달 초 "한국팀이 F1에 참가할 것이

라는 기대를 갖고 한국인 F1 선수 육성을 도울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F1을 J프로젝트의 견인차로 삼고 지난 2일 FI 주관기구인 'FOM'과 서울에서 2010년 대회 개최 조인식을 마친 전남도는 이 보도에 큰 관심을 표명했다.

2010년 전 세계에서는 모두 18차례의 F1레이스가 예정돼 있지만 만일 J프로젝트 사업지구 내인 영암군 삼호면에 건설될 자동차경주대회 전용 경주장에서 열리는 대회에 현대차가 참여한다면 전체 사업 성공의 기폭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23일 "현대차의 국제적인 위상을 감안했을 때 한국 대회 참여가 확정된다면 J프로젝트 추진 전반에 큰 활기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중앙선거위원회 고현철씨 상임위원 김호열씨

시험에 합격해 법원행정처 인사 관리국장, 서울 고법 부장판사, 서울형정법원장, 서울지방법원장을 거쳐 2003년 3월 대법관에 임명됐다.

연립뉴스

연립뉴스

## 인공위성 자력발사 지연 '논란'

### "美, 러에 기술이전 반대 서한" 월간 신동아 보도 과기부 "우주기술보호협정 늦어졌기 때문" 해명

내년 10월 고흥군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국산인공위성의 자력발사 계획인 '한국우주발사체(KSLV-I) 발사'가 다소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월간 '신동아'는 우리나라 땅에서 우리의 기술로 인공위성을 발사하려는 정부 계획이 미국의 개입으로 늦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신동아'가 입수한 과학기술부의 대외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우려, 러시아 우주발사체 기술의 한국 이전에 반대하는 서한을 러시아 외무부에 보냈으며 이후 러시아 측은 우주발사체 설

계도 및 발사대 설계도의 한국 이전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로 인해 고흥군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예정된 한국우주발사체(KSLV-I) 발사가 지연되게 됐다는 것이다.

신동아 보도에 앞서 정부측도 지난 12일 김우식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산 인공위성의 자력발사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당초 100kg 크기의 과학위성을 독자적으로 개발, 2007년 10월 고흥 외나로도 우주센터에서 자력으로 발사한다는 계획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러시아측이 발사체의 1단(액체연료)을, 우리나라 기술진이 2단(고체연료)을 각각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과기부는 국산 인공위성 자력발사의 지연은 미국 개입에 의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와의 우주기술보호협정(TSA) 체결이 늦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과기부는 "미국이 러시아에 그런 서한을 보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미국의 방해 때문에 KSLV-I 사업이 지연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10월 중 TSA가 체결되더라도 양국의 국회비준, 상세설계도에 따른 발사체 개발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인공위성 자력발사 일정은 2008년 이후로 늦춰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립뉴스

## 409년전 판옥선 울돌목에 다시 뜬다

### 해남명량대첩제서 재현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함인 판옥선이 409년 만에 재현돼 명량대첩의 화려한 승전고를 다시 울리게 된다. <사진> 해남군은 오는 27일부터 29일까

지 3일 동안 우수영 현지에서 펼쳐질 제 409주년 해남명량대첩제에서 당시 해상전투를 재현키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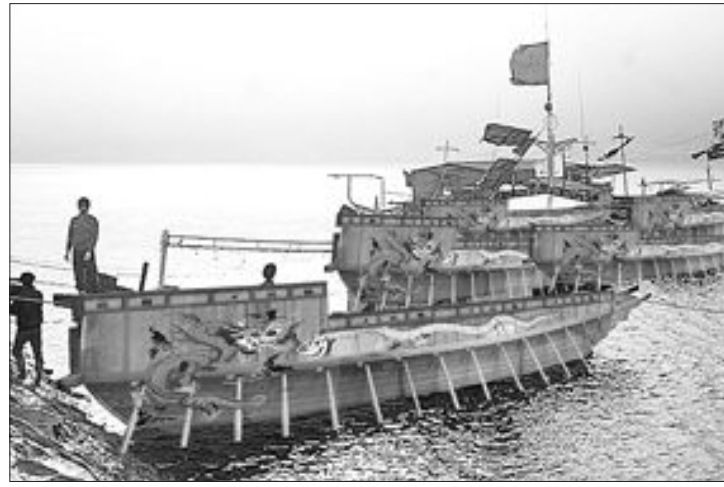
이날 해상전투재현에 동원되는

어선은 70여 척. 해남어민들이 자신들의 선박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는 이 행사에서는 어선 13척이 판옥선으로 꾸며지게 된다.

문내 양도해역과 삼정해역간 울돌목 앞 바다에서 25분간 펼쳐질 해상전투는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하기 위해 싸움을 알리는 봉화가 실제로 피어오르며, 화포싸움에 형형색색의 화약이 사용되고 전투음향, 승전퍼레이드 등이 현장감 넘치게 연출된다.

해남군은 "지난해 가장 인기를 끌었던 명량대첩 해상전투재현을 보다 박진감있게 연출하기 위해 판옥선과 당시 수군의 모습을 재현했다"고 밝혔다.

/해남=박정목기자 jopark@



## 성인오락실 자정 이후 영업 금지

### 오늘의 국감

이달 29일부터 오락실 등 게임물 제공업소의 심야영업이 금지된다. 또 등급분류시 게임물 운영 소프트웨어의 개·변조 방지 기능에 대한 심의가 추가돼 관련업자들의 게임기 불법 개·변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 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게임산업진흥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경

품을 제공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할 때 운영 소프트웨어 개·변조 방지 기능 및 투입장치 위·변조 식별기능, 사행성 기준 준수기능 등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행성 게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오락실, 온라인 게임 등 게임제공업자 및 오락실과 노래방 기능이 혼합된 복합유통 제공업자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로 영업시간을 제한, 사실상 심야영업을 금지했다.

▲법제사법위=광주고법, 광주지법, 전주지법, 제주지법(오전 10시, 광주고법) 광주고검, 광주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오후 2시, 광주고검)

▲교육위=전남대학교 (오후 3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한국수력원자력(주), 영광원자력본부(오전 11시, 영광원자력본부)

/연립뉴스

공고 제2006-42호

# 광주광역시교육감선거의 결선투표 공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주광역시교육감선거의 결선투표가 다음과 같이 실시됨을 공고하니 선거인(초·중·고등학교운영위원)은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선투표시유 : 유효투표의 과반수 득표자가 없음.
2. 결선투표대상 후보자명 : 기호2번 안순일, 기호4번 윤영철
3. 결선투표일시 : 2006. 10. 25.(수)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4. 결선투표장소 : 원선거의 투표장소

### 투표장소

투표소명	투표장소
동구선거관리위원회투표소	동구선거관리위원회 2층 회의실 (광주 동구 대인동, 한미쇼핑 옆)
서구선거관리위원회투표소	서구청 구민생활관 (광주 서구 농성동, 서구청내)
남구선거관리위원회투표소	남구청 2층 회의실 (광주 남구 봉선동)
북구선거관리위원회투표소	북구선거관리위원회 1층회의실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 옆)
광산구선거관리위원회투표소	송정1동사무소 2층 회의실 (광산문화예술회관 옆)

2006년 10월 24일

##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